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375>

JCCT 2023-9-45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05년~2022년 국내 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powerment: Korean Articles Published in 2005 Through 2022

고슬기*, 김상림**

Seul Gi Ko*, Sang Lim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2022년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국내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87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게재연도와 연구방법 및 연구주제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국내의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 학술지 연구는 2005년에 처음 게재된 후 2022년까지 매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구유형은 '양적연구',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법', 자료분석방법은 '영향(경로)분석'이 우세했다. 이와 함께 연구대상으로는 '유아반교사'와 '어린이집'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측정도구로는 'Short와 Rinehart의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연구주제 분석 결과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했다.

주요어 :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 연구동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Korean articles on early childhood teachers' empowerment published in 2005 through 2022. For this purpose, 87 articl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year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themes. As results, Korean article on early childhood teachers' empowerment was first published in 2005 and then continuously conducted every year until 2022.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questionnaire', and 'analysis of effects' were shown the most. In addition, 'early childhood teacher' and 'daycare center' showed more distribution and 'the scale developed by Short and Rinehart' was most used. As research themes, the most studies have investigated 'influence of empowerment'.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 and suggest on future research.

Key words : Early childhood teachers, empowerment, research trends

I. 서론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은 영유아의 생애초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1]. 보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유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수준의 보육·교육과정에서 요구

*정회원, 인천대학교 대학원 유아·숲·자연교육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July 31, 2023 / Revised: August 29,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slkim@i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되는 대표적인 교사 역량으로 임파워먼트를 들 수 있다. 즉, 현행 보육·교육과정인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영유아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신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에 해당한다[2, 3].

임파워먼트는 부여한다는 의미의 'em'과 권한을 뜻하는 'powerment'의 합성어이다. 단어 자체로 해석하면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의미이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80년대 초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4, 6], 1980년대 후반 교육학 분야에서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7, 9]. 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교사에게 적용한 것으로 '교사 스스로 본인의 성장을 책임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10]. 영유아보육·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1997년 미네소타주에서 Marxen과 동료들이 유치원교사의 임파워먼트 효과를 고찰한 것이 그것이다[11].

국내의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연구는 2005년 게재된 두 편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12, 13]. 두 편 모두 보육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수행됐는데, 정혜영과 박영준은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 조직건강, 직무만족도 간 인과모형을 분석하여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했고, 김경혜와 김진숙은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에 원장의 리더십 유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했다[12, 13]. 2005년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첫해로,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과 보육교사 양성 재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해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에 대한 국내의 초기 연구가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 국내연구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확장되었으며,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교육계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교사의 역할 및 보육·교육과정의 변화로 이어졌다. 예컨대, 영유아의 재원 기간 증가와 아동학대 우려로 질 높은 교사의 자율적인 판단과 적절한 교사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임파워먼트의 중요성

과 영향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수행되었다[14]. 또한, 2011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2019년 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의 개정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점차 강조되어 권한이행을 의미하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졌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성장과 업무능력 발달 및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그리고 나아가 보육·교육기관의 발전과 관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교사가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게 인식할 때 자기개발 욕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높은 인식은 역할수행능력의 증진으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보육·교육 활동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18].

이상에서와 같이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2005년 처음 수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선행연구 동향 분석은 2007년 김민환에 의해 수행된 한 편의 연구에 국한될 뿐[19],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에 주목하여 최근에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연구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술지의 선정범위를 KCI(Korea Citation Index) 학술지로 제한하며, 연구 시기는 관련 연구가 처음 게재된 2005년부터 2022년까지로 한정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설계와 임파워먼트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의 게재연도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연구유형,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 87편이다. 학술지 유형은 연구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KCI 등재지로 제한했으며, 게재연도는 해당 연구가 처음 등장한 2005년부터 2022년까지를 포함했다.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유아교사 임파워먼트’, ‘보육교사 임파워먼트’, ‘영아교사 임파워먼트’ 등을 주제로 검색했다. 그 결과 총 95개의 국내 학술지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KCI 등재지가 아닌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제외한 후 87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했다.

2. 분석 방법 및 기준

1) 게재연도 동향 분석

분석대상 논문의 게재연도를 고찰하기 위해 연도별 빈도 및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시, 게재된 학술지명을 함께 분석했다.

2) 연구방법 동향 분석

(1) 연구유형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유형을 고찰하기 위해 우수경과 황해익의 연구를 토대로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의 3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했다[20].

(2) 연구대상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대상을 고찰하기 위해 김민정과 김현주, 김정희와 김은심의 연구를 토대로 담임반 연령대와 교육기관 유형을 분석기준으로 사용했다. 담임반 연령대는 ‘영아교사’, ‘유아교사’, ‘영유아교사’의 3가지로 범주화하고, 교육기관 유형은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3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했다[21, 22].

(3) 측정도구

분석대상 논문의 측정도구를 고찰하기 위해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 척도의 개발자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4) 자료수집방법

분석대상 논문의 자료수집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정효진과 배지현의 연구를 토대로 양적연구에 해당하는 ‘질문지법’, ‘실험법’, ‘관찰법’, ‘검사법’, 질적연구에 해당하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헌연구에 해당하는 ‘문헌조사’로 범주화하여 분석했다[23].

(5) 자료분석방법

분석대상 논문의 자료분석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서현선과 동료들 그리고 송미선의 연구를 토대로 양적연구에 해당하는 ‘기술통계분석’,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영향(경로)분석’, 질적연구에 해당하는 ‘질적분석’, 문헌연구에 해당하는 ‘문헌분석’으로 범주화했다. 1편의 논문에서 2개 이상의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한 경우 중복처리하여 분석했다[24, 25].

3) 연구주제 동향 분석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임파워먼트가 어떠한 변인 유형으로 고찰되었는가를 토대로 7가지의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분석했다[26]. 즉, 분석 시 사용된 7가지 연구주제를 기술하면, 임파워먼트가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와 ‘임파워먼트에 따른 변인 차이 연구’, 임파워먼트가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와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연구’, 임파워먼트가 매개 또는 조절 변수로 사용된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와 ‘조절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그리고 임파워먼트와 타변인 간 상관관계를 다룬 ‘임파워먼트 관계 연구’이다.

III. 연구 결과

1. 게재연도 동향 분석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 87편을 게재연도와 학술지명에 따라 분석했다. 먼저 게재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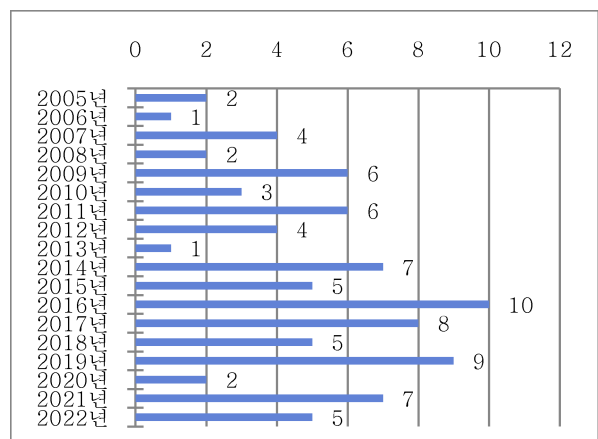


그림 1. 게재연도 동향(N=87)

Figure 1. Trend of publication years

그림 1에서와 같이,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 관련 논문은 2005년($n=2$, 2.3%)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2022년까지 매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연도별 게재 편수는 2006년 1편($n=1$, 1.2%), 2007년 4편($n=4$, 4.7%), 2008년 2편($n=2$, 2.3%), 2009년 6편($n=6$, 6.9%), 2010년 3편($n=3$, 3.4%), 2011년 6편($n=6$, 6.9%), 2012년 4편($n=4$, 4.7%), 2013년 1편($n=1$, 1.2%), 2014년 7편($n=7$, 8.0%), 2015년 5편($n=5$, 5.7%), 2016년 10편($n=10$, 11.5%), 2017년 8편($n=8$, 9.2%), 2018년 5편($n=5$, 5.7%), 2019년 9편($n=9$, 10.3%), 2020년 2편($n=2$, 2.3%), 2021년 7편($n=7$, 8.0%), 2022년 5편($n=5$, 5.7%)이었다.

다음으로 게재된 학술지명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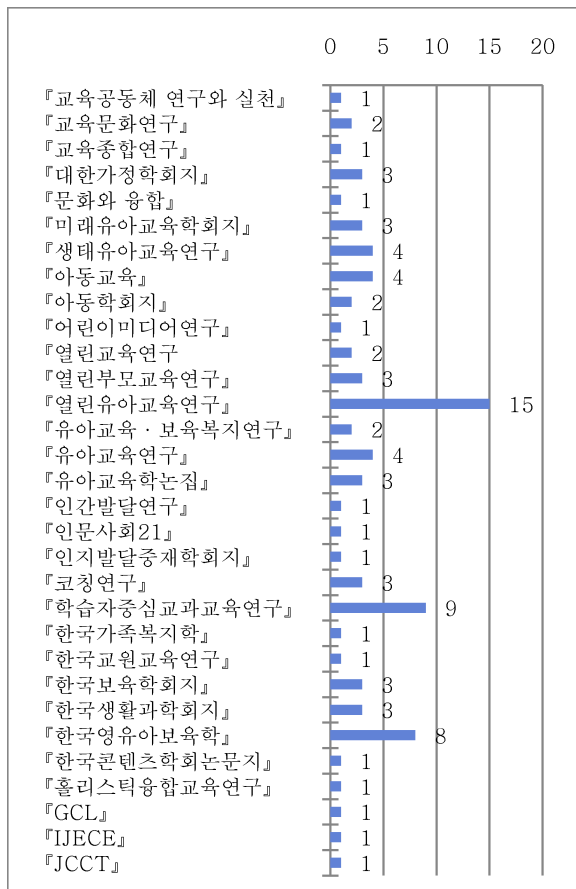


그림 2. 게재연도 학술지명 동향($N=87$)

Figure 2. Trend of journal titles

그림 2에서와 같이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열린유아교육연구』 ($n=15$, 17.2%) 였으며, 8~9편이 게재된 학술지로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n=9$, 10.3%), 『한국영유아보육

학』 ($n=8$, 9.2%)이 있다. 다음으로 4편($n=4$, 4.6%)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3개(『생태유아교육연구』, 『아동교육』, 『유아교육연구』)였으며, 3편($n=3$, 3.5%)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7개(『대한가정학회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열린부모교육연구』, 『유아교육학논집』, 『코칭연구』, 『한국보육학회지』, 『한국생활과학회지』), 2편($n=2$, 2.4%)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4개(『교육문화연구』, 『아동학회지』, 『열린교육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였다. 마지막으로 1편($n=1$, 1.1%)씩 게재된 학술지는 총 14개로, 학술지명을 나열하면 『교육공동체 연구와 실천』, 『교육종합연구』, 『문화와 융합』, 『어린이미디어연구』, 『인간발달연구』, 『인문사회 21』, 『인지발달장애학회지』,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교원교육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Global Creative Leader (GCL)』,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JEC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이다.

2. 연구방법 동향 분석

1) 연구유형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양적연구’($n=87$, 100%)만 나타났고, ‘질적연구’와 ‘문헌연구’는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대상을 담임반 연령대와 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분석했다. 먼저 연구대상의 담임반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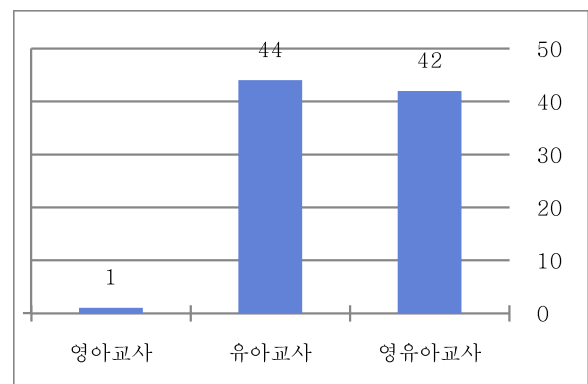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대상 담임반 연령대 동향($N=87$)

Figure 3. Trend of class age groups

그림 3에서와 같이 ‘유아교사’($n=44$, 50.6%)와 ‘영유아교사’($n=42$, 48.3%)가 대다수였고, ‘영아교사’($n=1$, 1.1%)는 소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교육기관 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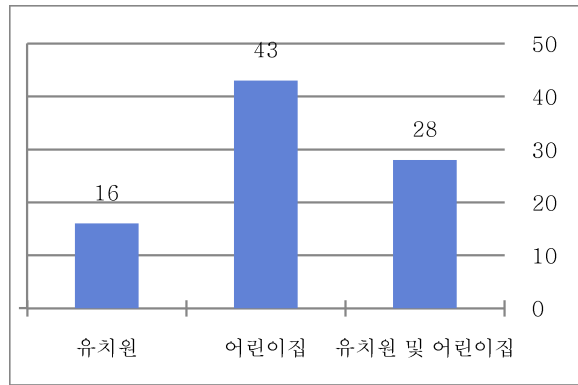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대상 교육기관 유형 동향($N=87$)
 Figure 4. Trend of Education Institution types

그림 4에서와 같이 ‘어린이집’($n=43$, 49.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n=28$, 32.2%), ‘유치원’($n=16$,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측정도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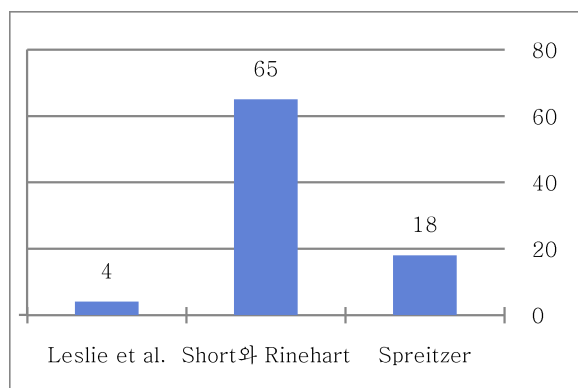


그림 5. 측정도구 동향($N=87$)
 Figure 5. Trend of measurement tools

그림 5에서와 같이 세 가지의 측정도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Short와 Rinehart[27]의 척도’($n=65$, 74.7%)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Spreitzer[28]의 척도’($n=18$, 20.7%), ‘Leslie et al.[29]의 척도’($n=4$, 4.6%)의 순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자료수집방법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 중 ‘질문지법’($n=87$, 100%)만 나타났다. 즉, 기타의 양적인 자료수집방법과 질적 자료수집방법 및 문헌조사방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5) 자료분석방법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자료분석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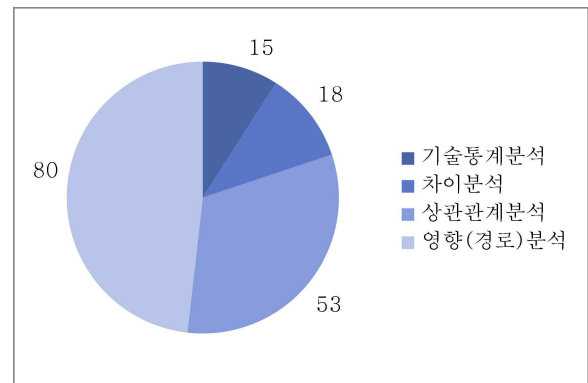


그림 6. 자료분석방법 동향($N=166$)
 Figure 6. Trend of data analysis methods

그림 6에서와 같이 ‘양적자료분석방법’($n=166$ 개, 100%)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영향(경로)분석’($n=80$, 48.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n=53$, 31.9%), ‘차이분석’($n=18$, 10.9%), ‘기술통계분석’($n=15$,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와 문헌연구의 분석방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연구주제 동향 분석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주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주제 동향($N=87$)
 Table 1. Trend of research themes

변인 유형	연구주제	$n(\%)$
독립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	37(42.5)
	임파워먼트에 따른 변인 차이 연구	1(1.1)
종속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21(24.2)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연구	4(4.6)
매개 및 조절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21(24.2)
	조절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1(1.1)
상관관계	임파워먼트 관계 연구	2(2.3)
계		87(100)

표 1에서와 같이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주제는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n=37$, 42.5%)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와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각 $n=21$, 24.2%),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연구’($n=4$, 4.6%), ‘임파워먼트 관계 연구’($n=2$, 2.3%), ‘조절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와 ‘임파워먼트에 따른 변인 차이 연구’(각 $n=1$, 1.1%)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의 변인 유형에 따라 사용된 변인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가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연구의 경우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 37편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연속변인인 직무만족도, 조직건강, 조직효과성, 소진, 조직헌신도, 교사효능감, 교육전문성, 교직헌신, 경력몰입, 정서적몰입, 행복감, 이직의도,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영유아권리존중보육, 교사-영유아상호작용, 행복플로리시, 역할수행, 자기개발 욕구 등이 사용되었고, ‘임파워먼트에 따른 변인 차이 연구’ 1편에서는 종속변인으로 비연속변인인 유아교육공동체 인식이 사용되었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가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연구의 경우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21편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연속변인인 상급자의 리더십, 조직문화, 정서지능, 조직공정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행복감, 교직원 의식, 그릇 등이 사용되었고,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연구’ 4편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적 변인, 시설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수준, 근무환경 등이 사용되었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수로 설정된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21편에서는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유아교사의 직무만족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 교육공동체 인식과 교사-부모 협력 간 관계에서의 매개효과, 어린이집 조직문화가 보육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개효과,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업윤리가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개효과 등을 다루었다. 넷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가 조절변수로 설정된 ‘조절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 1편에서는 보육교사의 CCTV 인식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고찰했다. 다섯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와 타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탐색한 ‘임파워먼트 관계 연구’ 2편에서는 타변인으로 유머감과 직무스트레스가 사용되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별 주요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게재연도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의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는 2005년 최초로 게재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즉,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7편으로 등락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 가장 많은 10편이 게재되어 급증했으며, 이후 2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두 번째로 많은 9편이 게재되면서 다시 급등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2편과 7편 사이에서 감소와 증가 추세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5년 단위로 연도를 분할하여 살펴볼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최근 5년인 2016~2020년의 게재 편수는 34편(39%)으로 이는 2011~2015년의 23편(26.5%) 및 2005~2010년의 18편(2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가 학문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관련 연구 수행도 점차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도별 연구동향은 영유아보육·교육계의 변화상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가 최초로 게재된 2005년은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질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뜻 깊은 해이다. 즉, 보육 관련 고유법령으로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전면 개정 후 2005년 공포 및 시행되었으며, 유치원 교육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이 2004년 폐지되고 2005년 『유아교육법』으로 새롭게 제정되면서 초·중등교육과 어깨를 견주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통한 교육·보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제고를 통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도약의 시기와 맞물려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국내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6년에 가장 많은 10편이 게재되어 급증한 것은 전년도 대비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건수가 54.5%로 기하급수적 증가하면서[30] 높은 자질을 갖춘 영유아교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9편이 게재되면서 다시 급등했는데, 이는 2019년의 개정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한 유아교사의 자율적 역량 강화로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게재연도별 연구동향은 변화되는 교사역할과 질 높은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요구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수적으로 2020년 이후 연구물의 감소는 COVID-19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향후의 연구동향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연구방법의 동향을 살펴본다. 첫째, 연구유형으로는 87편 모두 ‘양적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수집방법으로 ‘질문지법’만 나타났고, 자료분석방법으로 ‘양적분석방법’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교사 및 유아교사 관련 동향분석 논문에서 양적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31]. 이와 함께 ‘양적자료분석방법’으로 ‘영향(경로)분석’, ‘상관관계분석’, ‘차이분석’, ‘기술통계분석’ 등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통계분석방법을 통해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가 다각적으로 고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변인이므로 양적연구 방법만으로 수치화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면담 등의 다양한 자료수집방법과 나아가 질적연구나 문헌연구를 통한 심도 있는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담임반 연령대는 ‘유아교사’가 대부분이고 ‘영아교사’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영아교사에게 보호의 역할이, 유아교사에게 교육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영유아교사를 연령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배출하는 현 교사양성과정을 고려할 때 영아교사의 임파워먼트에도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할 도구를 분석한 결과 사용된 척도는 총 3가지로 나타났는데[27, 29], 이들 모두 1900년대에 해외에서 개발되고 국내 연구자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함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다수 연구에서 Short와 Rinehart[27]의 척도를 사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조직 맥락에서 개발된 다른 두 가지의 척도와 달리 해당 척도가 학교 맥락에 사용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의 영유아교사를 대

상으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척도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연구주체의 동향을 고찰했다. 그 결과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와 ‘매개변수로의 임파워먼트 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국내 연구의 학문적 역사가 20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교육의 주요한 변인과의 관계가 다각적으로 검증되어왔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인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강조되는 영유아중심과 놀이중심,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직 내에서의 권한이양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고양을 의미하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향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동향을 분석했다. 계속해서 임파워먼트가 중요해짐에 따라 국내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영유아교사 임파워먼트의 연구동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에서 예비영유아교사를 제외하고 현직에서 근무하는 영유아교사만 대상으로 동향을 분석했다. 예비영유아교사도 영유아교사가 되기 직전의 교사 단계이므로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예비영유아교사도 포함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논문의 게재연도와 연구방법 및 연구주체를 고찰했다. 연구결과로 첫째, 게재연도 기준으로 2005년에 처음 게재된 후 2022년까지 매해 지속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방법 중 연구유형은 모두 ‘양적연구’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유아반교사’,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고, 측정도구는 ‘Short와 Rinehart의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모두 ‘질문지법’이었고, 자료분석방법은 ‘영향(경

로)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셋째, 연구주제는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영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 설계 및 임파워먼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OECE, Starting Strong III -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City: OECD, 2012.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4th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Commentary, Sejong C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 [3]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Commentary, Sejong City: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 [4] H. L. Perry, "The Socioeconomic Impact of Black Political Empowerment in a Rural Southern Locality," *Rural Sociology (RS)*, Vol. 45, No. 2, pp. 207-222, 1980.
- [5] E. B. Pinderhughes, "Empowerment for Our Clients and for Ourselves," *Social Casework (SC)*, Vol. 64, No. 6, pp. 331-338, 1983.
- [6] J. Rappaport, "In Praise of Paradox: A Social Policy of Empowerment over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AJCP)*, Vol. 9, No. 1, pp. 1-25, 1981.
- [7] D. A. Erlandson, & S. L. Bifano, "Teacher Empowerment: What Research Says to the Principal," *NASSP Bulletin (NBL)*, Vol. 71, No. 503, pp. 31-36, 1987.
- [8] G. I. Maeroff, "Teacher Empowerment: A Step toward Professionalization," *NASSP Bulletin (NBL)*, Vol. 72, No. 511, pp. 52-60, 1988.
- [9] M. Yonemura, "Reflections on Teacher Empowerment and Teacher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HER)*, Vol. 56, No. 4, pp. 473-481, 1986.
- [10] Short, P. M., Dimensions of Teacher Empowerment, Program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tate College, PA, 2012.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38614.
- [11] C. Marxen, G. Irvine, H. Carlson, J. Billman, & J. Sherman, "Empowerment Effect Through Involvement in a Statewide Research Study on Kindergarten Educ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JECTE)*, Vol. 18, No. 3, pp. 35-42, 1997.
- [12] K. H. Kim, & J. S. Kim, "The Effects on the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by Childcare Directors' Leaderships and Empower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JECREW)*, Vol. 9, No. 4, pp. 5-29, 2005.
- [13] H. Y. Jung, & Y. J. Park,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Between Empowerment, Organizational Health & Job Satisfaction of Edu-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JKOAECE)*, Vol. 10, No. 4, pp. 45-67, 2005.
- [14] E. J. Cho, & E. Y. Park,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Child Abuse Perceived by Childcare Teachers and Mandatory Reporter's Practical Volitio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JHSS)*, Vol. 11, No. 2, pp. 669-683, 2020.
- [15] Y. M. Lee, & J. H. Ahn, "The Effects of Empowerment and the Awareness of Reward on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Development Desir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JPE)*, Vol. 12, No. 1, pp. 145-161, 2020.
- [16] H. Hwang, & H. J. Mun,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mpowerment on Role-Performa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19, No. 6, pp. 1097-1116, 2019.
- [17] M. S. Choi, Y. O. Choi, & H. Y. Min, "The Influence of The Perceived Supervisor's Servant Leadership and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of Childcare Teachers on Work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KJHE)*, Vol. 31, No. 2, pp. 175-186, 2022.
- [18] P. K. Kim, & H. J. Jung,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and Empowerment on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Infants and Toddlers,"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JKCR)*, Vol. 12, No. 4, pp. 125-144, 2019.
- [19] M. H. Kim, "A Critical Review on the Research of Teachers' Empowerment: Trends, Prospect, and Task,"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JKTE)*, Vol. 24, No. 1, pp. 31-53, 2007.
- [20] S. K. You, & H. I. Hwang,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eacher Professionalis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ctor,"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 Education (JKOAECE)*, Vol. 14, No. 3, pp. 293–314, 2009.
- [21]M. J. Kim, & H. J. Kim,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Related to Nursery and Preschool Teacher Education Program," *Korean Education Inquiry (KEI)*, Vol. 33, No. 4, pp. 167–189, 2015.
- [22]J. H. Kim, & E. S. Kim,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Job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JCLE)*, Vol. 21, No. 2, pp. 327–346, 2020.
- [23]H. J. Jung, & J. H. Bae, "Comparative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Peer Relationships of Toddlers and Preschoolers,"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JKOAECE)*, Vol. 20, No. 5, pp. 157–183, 2015.
- [24]H. S. Suh, S. K. Choi, & J. H. Bae, "Research Trends on Communic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Parents,"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JKOAECE)*, Vol. 24, No. 1, pp. 247–267, 2019.
- [25]M. S. Song,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f Theses about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KJCM)*, Vol. 13, No. 3, pp. 149–169, 2014.
- [26]H. J. Han, "Analysis of Trends of Grit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21, No. 16, pp. 141–152, 2021.
- [27]P. M. Short, & J. S. Rinehart, "School Participant Empowerment Scale: Assessment of Level of Empowerment within the School Environ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EPM)*, Vol. 52, No. 4, pp. 951–960, 1992.
- [28]G. M. Spreitzer,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MJ)*, Vol. 38, No. 5, pp. 1442–1465, 1995.
- [29]D. R. Leslie, C. M. Holzhalb, T. P. Holland, "Measuring Staff Empowerment: Development of a Worker Empowerment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RSWP)*, Vol. 8, No. 5, pp. 212–222, 1998.
- [30]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National Child Abuse Status Report, Sejong C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 [31]Y. H. Byon, & S. O. Hwang,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the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KJCE)*, Vol. 42, No. 6, pp. 595–615, 2022.